



MVPR-2008-40

VIP REPORT

2008. 11. 11.

■ 2009년 주요 산업 전망과 현안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이장균, 주원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2009년 주요 산업 전망과 현안

Executive Summary	i
1. 2009년 산업 전망의 전제조건	1
2. 2009년 산업 관련 주요 트렌드	3
① (수 출) 마이너 마켓(Minor Market)의 재조명	
② (내 수)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 소비의 등장	
③ (업 종)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④ (구 조) 산업내 구조조정의 확산	
⑤ (산업정책) 케인즈 시대로의 회귀	
3. 주요 산업 전망 및 현안	8
① 조선 산업	
② 기계 산업	
③ 자동차 산업	
④ 철강 산업	
⑤ 석유화학 산업	
⑥ 해운 산업	
⑦ 물류 산업	
⑧ IT 산업	
⑨ 건설 산업	
4. 2009년 산업 부분 5대 과제	28

1. 2009년 산업 전망의 전제조건

(대외) 2009년에는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보다 0.9%p 감소한 3.0%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는 1% 이하로 추락할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세계 교역량 증가율도 올해보다 0.8%p 둔화된 4.1%p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 소비자 물가는 2008년 보다 다소 하락하여 선진국은 2.0%, 개발도상국은 7.8%가 될 전망이다.

(국내) 2009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08년의 4.3%보다 낮은 3.9% 성장하며 연간 경기 추세는 '상고하저'형으로 전망된다. 소비 부진이 지속으로 소비지출은 2008년 보다 0.4%p 낮은 2.3% 성장으로 예상되며, 투자는 1.6%p의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여 11.5%에 머물 것이나 원자재가 하락으로 적자 폭은 축소될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달러 약세, 국제 상품가격 하락,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2008년 보다 0.8%p 하락한 3.9%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2. 2009년 산업 관련 주요 트렌드

(수출: 마이너 마켓(Minor Market)의 재조명) 내년도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 경기는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경기가 동반 침체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마이너 마켓이 부각될 것이다. 선진 시장 침체와 동유럽 국가들의 도미노 외환위기로 신흥시장 개척이 절실한 국내외 기업들에게 마이너 마켓이 매력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콩고(10.3%), 앙골라(12.8%), 몽고(8.1%), 수단(7.7%) 등 고도성장 이 예상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 되어 있으며, 자원이 많은 저개발/미개발 국가들이 재조명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 소비의 등장) 페르소나란 연극배우가 쓰는 가면이란 뜻으로, '멀티 페르소나 소비'란 구매 행태 측면에서 다중 정체성을 보이는 소비를 말한다. 경기 침체로 구매력이 감소한 소비자들이 저가품을 찾는 저가격 지향형 소비행태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기 상황에서의 자기보상 심리, 차별화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때로는 과감한 구매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전체 시장 관점에서는 명품과 저가품의 극단이 주목받는 양극화된 시장 모습이 예상된다.**

(업종: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금번 세계 경제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한 나라는 일본, 독일, 중국 등 제조업이 기반이 건실한 나라이다. 이 같은 경험은 세계 각국이 부분별한 서비스업 및 금융업으로의 확장을 경계하고, 실물이 수반되는 제조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세계 각국은 무분별한 서비스화 경쟁을 지양하는 대신, 제조업의 비중을 높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차츰 강화할 것이다.

(구조: 산업내 구조조정 확산) 금융위기로 촉발된 급속한 실적 악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수익성이 낮고 활황기에 중복투자가 과도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이다. 조선업의 경우 업황 부진과 자금 경색에 처한 중소형 조선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현실화되고 있고, 택배업도 최근 1, 2년 사이에 진출한 대형 후발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철수나 지분매각이 이미 진행 중이다. 정부의 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도 내년초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산업정책: 케인즈 시대로의 회귀) 재정확대와 감세를 통해 산업경기를 부양하는 케인즈식 산업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의 당선으로 에너지, 자원, 헬스케어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신사업 분야에서의 정부 특수가 기대된다. 국내의 경우에도 정부가 33조 원 가량을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하여 건설경기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관 산업의 업황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3. 주요 산업 전망 및 현안

<2009년 주요 산업 전망 종합>

산업	2008	2009	
		전망	비고 (2008년 대비)
조선 산업			- New Shipbuilding Index : 188 → 108 ~ 150
기계 산업			- 수출 : 17.9% → 9.0 ~ 17.0% - 생산 : 8.6% → 4.5 ~ 8.0%
자동차 산업			- 내수 : 6.6% → -7.7 ~ -3.8% - 수출 : 1.9% → -3.4 ~ 3.5% - 생산 : 2.8% → -4.8 ~ 1.2%
철강 산업			- 내수 : 8.2% → -2.5 ~ 2.4% - 수출 : 11.6% → -3.5 ~ 3.5% - 생산 : 10.1% → -4.2 ~ 1.4%
석유화학 산업			- 내수 : 1.4% → 0.0 ~ 1.0% - 수출 : 15.1% → 2.1 ~ 3.5% - 생산 : 9.2% → 0.7 ~ 2.5%
해운 산업			- 벌크선 : 1,223.8 (10/24) → 1,000 ~ 3,200 - 유조선 : 87.5 (10/23) → 60 ~ 90 - 컨테이너선 : 798.5 (10/22) → 700 ~ 900
물류 산업			- 국내 물류 시장 규모 : 21.4% → 4.0 ~ 10.2%
IT 산업			- 내수 : 7.3% → 1.5 ~ 3.0% - 수출 : 4.6% → 2.3 ~ 4.1% - 생산 : 5.9% → 2.4 ~ 4.4%
건설 산업			- 수주 : -6.7% → -7.0 ~ 0.5%
아주 나쁨 나쁨 보통 좋음 아주 좋음			

(조선산업) 2009년 조선경기는 2008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조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공급측면에서는 조선 계약 해지 증가로 잉여 생산 능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금융 경색이 심화되면서 선박 금융이 위축되고, 업계의 구조조정이 강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유조선과 심해시추선 분야는 성장이 예상된다.**

(기계산업) 국내 설비투자 둔화가 2009년까지 이어져 기계산업의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은 신흥성장국의 수요에 힘입어 2008년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현안으로는 국제 원자재가가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되고 있어 채산성 압박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 신흥국 시장의 수요 확대는 기회요인 이나 선진국 시장이 침체되어 전체 자동차 시장은 위축이 예상된다.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연비 중소형차에 대한 수요 확대도 예상된다.

(철강산업) 경기침체로 세계 철강 수요가 급감하면서 철강수요와 공급 모두 2008년 대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현안으로는 첫째, 대형화를 위한 대형 철강업체들의 M&A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둘째, 자원보유국의 민족주의 확산으로 인한 원료 수출 규제에 따라 철강 원료의 안정적 확보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석유화학산업) 세계 경기 침체로 수요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동의 신증설로 인한 공급 증가가 시작되어 전반적인 침체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하락하는 공급 초과가 발생하면서 가격 급락과 이로 인한 감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업체의 생산 설비 가동률이 현재의 92%에서 80% 후반대로 하락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수익성 악화 분위기 속에서 업스트림 제품과 다운스트림 제품 간의 수익성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운산업) 세계 경제의 위기로 교역량 증가율이 저하되면서 해운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공급은 늘어 벌크선의 경우는 15.1%, 유조선의 경우는 14.5% 그리고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15.8%가 증가할 전망이다.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해운동맹' 해체로 인한 경쟁 격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산업)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09년 전체 물류시장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하여 전년 대비 4.0% ~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액으로는 최소 97조원 ~ 최대 102조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한편, 물류업계의 구조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3PL 증대 등 선진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해외 시장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IT산업) 세계 경기침체로 IT산업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반도체, 휴대폰, LCD 등 수익성 하락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09년 상반기부터 감산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나, 신흥시장의 경기침체와 공급과잉 지속으로 강한 반등세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로 판단된다. IT서비스업도 침체가 예상되며, IT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압력도 더욱 증대할 것이다.

(건설산업) 경기 활성화 및 국토 균형개발정책으로 공공부문 건설이 확대되면서 건설 주가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부문은 재정투자 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나, 민간 부문은 전년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공중별로는 토목 부문에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주거용은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해외 건설은 감소세가 예상된다.

4. 2009년 산업 부문 5대 과제

(첫째, 산업기반 붕괴 방지를 위한 내수부양 정책 필요) 산업경기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적극적 내수부양이 시급하다. 지역 광역권 개발, 새만금 사업 등 정부 SOC 투자를 예정대로 집행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기업 규제 완화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금액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조기 인하, 특별소비세와 부가세의 한시적 감면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둘째, 수출 확대 지원책 필요) 내년도 주력산업들의 수출 둔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보험기금을 증대하여 플랜트 등 고위험 수출상품을 지원하고,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IT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잠재력은 있지만 리스크가 큰 마이너 마켓에 진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일본과 중국처럼 해외진출보험과 대출제도 확대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신성장산업 발굴 지속) 경기 회복기에 성장발판이 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선진국 경제 침체로 선진국의 투자 여건이 악화된 때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사업 육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77전략과 같은 국가 R&D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형성 초기에 있는 미성숙된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설자 역할을 강화하며, 보조금 지급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3R' 경영에 집중) 3R 경영전략으로 불황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Re-engineering (경영체제 개편)' 관점에서 비용절감, 불필요한 업무제거,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Re-structuring (사업구조 조정)' 관점에서 저수익, 비수익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하는 불황기형 포트폴리오를 구성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Re-vitalization (조직 문화 활성화)' 관점에서는 무리한 인적구조조정은 최대한 지양하여 조직 안정성을 도모하고,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인재 발굴과 양성은 지속해야 한다.

(다섯째, FTA 추진 가속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므로 새로운 시장 확보와 수출 물량증대를 위하여 FTA 추진을 가속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하고 한-EU, 한중 FTA 등 후속 FTA도 더욱 서둘러야 한다.

2009년 주요 산업 전망과 현안

1. 2009년 산업 전망의 전제조건

- (대외여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전 세계 실물 경제 침체로 파급되면서 2008년 대비 매우 열악한 대외 상황이 예상됨
 - 세계 경기 동반 침체 : 2009년에는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세계 경제는 3% 대의 성장에 머물 것이며, 선진국과 신흥 개발국의 동반 침체가 우려됨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는 1% 이하로 추락할 것이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한자리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큼
 - 세계 교역량 감소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진국의 수입 수요 둔화가 두드러짐
 -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세계 교역량은 2008년에는 4.9%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며 2009년에 증가세가 한층 더 둔화될 것임
 - 소비자 물가와 국제유가 하락 : 전 세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8년에 정점을 찍고, 유가 하락으로 2009년에는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 2009년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의 3.6%에서 2.0%로, 개발도상국은 9.4%에서 7.8%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2009년 산업전망의 대외 경기 전제조건 >

		2006(P)	2007(P)	2008(E)	2009(F)
경제성장률(%)	세계	5.1	5.0	3.9	3.0
	미국	2.8	2.0	1.6	0.1
	EU	3.3	3.1	1.7	0.6
	일본	2.4	2.1	0.7	0.5
	중국	11.6	11.9	9.7	9.3
교역량 증가율(%)		9.3	7.2	4.9	4.1
소비자물가(%)	선진국	2.4	2.2	3.6	2.0
	개발도상국	5.4	6.4	9.4	7.8
국제유가(% , USD)		20.5	10.7 (71.13)	50.8 (107.25)	-6.3 (100.5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 (국내여건) 2009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상저하고'의 양상을 보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투자, 소비, 수출 등 수요측면의 회복세가 예상됨
 - (성장) GDP 증가율 둔화 : 2009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2008년의 4.3%보다 낮은 3.9% 성장하며 연간 경기 추세는 '상고하저'형으로 전망됨
·국내 경제성장률은 내년 상반기에 3.2%까지 하락하였다가 하반기부터 투자, 소비, 수출 등 수요측면의 호전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 (내수) 소비부진 지속 : 경기 침체 지속, 고용 부진, 역의 자산효과, 가계 부채 부담 상존으로 2008년 보다 0.4%p 낮은 2.3%로 성장으로 전망
 - (투자) 설비투자 미약한 회복 : 정부의 투자유인, 환율하락 등 개선요인과 소비 회복 지연, 수출 채산성 악화 등 악화요인이 상충하여 1.6%의 미약한 회복
 - (수출) 수출 감소하나 적자폭은 축소 :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여 11.5%에 머물 것이나 원자재가 하락으로 적자 폭은 축소
 - (물가) 상대적 안정세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달러 약세, 국제 상품가격 하향,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2008년 보다 0.8%p 하락한 3.9%로 안정세
 - (환율) 2009년에도 약(弱)달러 현상이 지속되어, 2008년의 1,060원보다 낮은 1,040원 선에서 안정화

< 2009년 산업전망의 국내 경기 전제조건 >

	2007(P)	2008(E)			2009(F)		
	연간	상반기	하반기	전체	상반기	하반기	전체
경제성장률	5.0	5.3	3.3	4.3	3.2	4.7	3.9
최종소비지출	4.7	3.1	2.3	2.7	2.0	2.6	2.3
총고정자본형성	4.0	0.3	0.3	0.3	0.8	2.3	1.6
수출증가율(%)	14.1	20.4	17.1	18.7	10.3	12.6	11.5
소비자물가(%)	2.5	4.7			3.9		
환율(원/ 달러)	929	1,060			1,04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 2009년 산업 관련 주요 트렌드

① (수출) 마이너 마켓(Minor Market)의 재조명

○ 2009년은 미국, EU 등 선진국 경기는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경기가 동반 침체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던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마이너 마켓이 부각

- 내년도에는 미국과 EU가 0%대 또는 그 이하의 성장이 예상되고, 중국 2~3%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등 세계 경기가 크게 위축
 - 금융위기의 실물경기 전파로 세계 경제는 소비둔화, 투자축소가 심화되어 2008년 3.9% 보다 낮은 3.0% 성장이 예상
 - 특히,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2008년 3.6%에서 2009년 2.0%로 위축되면서 선진국 시장의 매력이 감소
- 반면,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 미개발 국가는 세계 경기 침체의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경기 위축이 덜 함
 - 콩고 10.3%, 앙골라 12.8%, 투르크메니스탄 10.3%, 몽고, 8.1%, 수단 7.7% 등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고도성장이 예상
 - 이들 국가는 지금까지 정치 불안과 미 성숙된 소비시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공략시장에 포함되는 않는 대표적 마이너 마켓이었음
- 선진 시장 침체와 동유럽 국가들의 도미노 외환위기로 신흥시장 개척이 절실한 국내의 기업들에게 마이너 마켓은 매력적인 돌파구가 될 것임
 -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교역량 4%에 해당하는 동유럽 시장을 대신할 신시장이 필요
 - 잠재력이 크고, 자원 부국인 저개발, 미개발 국가 위주로 마이너 마켓 진출 시도가 매우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② (내수) 멀티페르소나(Multi-persona) 소비의 등장

- (개요)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감 극복을 위해 과거와 차별화된 다중 정체성을 보이는 멀티페르소나(Multi-persona) 소비가 등장할 것임
 - 멀티페르소나(multi-persona)란 연극배우가 쓰는 가면이란 뜻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기존과 다른 이성과 의지를 갖는 적극적인 주체를 말함
 -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감으로 기존의 욕구와 제품, 가격, 준거기준 등 소비자 구매행태가 과거와는 다른 다중 정체성을 보이는 소비가 발생할 것임
- (욕구) 심리적 안정감 추구를 위한 “자기보상”적인 소비욕구가 강해질 것임
 - 평상시 보다 낮은 소비지출 등 소비패턴 변화의 보상심리 때문에 자신을 위로하고 ‘상’을 주는 소비행태가 나타나게 됨
 - 주류, 의류, 화장품 등에서 기존에 자신이 선호하던 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상품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임
- (제품) 내구제·사치제 소비 대신 “엔젤지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임
 - 가구, 자동차 등 평상시에 거액의 비용이 동반되어도 구매해야 했던 내구제와 사치제 보다는 식품, 의약품 등 필수품 위주의 소비패턴이 정착될 것임
 - 특히 불황기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가족중심 경향을 촉진시킴으로 사회지향적인 사치성 제품보다는 가족형 제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임
- (가격) 자산 감소로 제품가격의 민감도가 강해져 “저가격 지향성”이 강화됨
 -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 및 기업의 실적악화,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침체로 인한 자산 감소효과로 과거보다 제품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강해질 것임
 - 저가제품 구매, 상설매장 이용, 기존제품의 재활용 등 저가격 구매행동과 카드 포인트 및 할인쿠폰 이용 등 비용절감 경향이 증가할 것임
- (준거기준) 제품구매에 따른 리스크 방지를 위해 “브랜드 지향성”이 강해질 것임
 - 불황기때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위험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가제품에서도 PB(유통업체 부착방식 브랜드) 등 브랜드 선호가 강해질 것임
 - 충동구매 보다는 ‘좋은 것을 사서 오래 사용하겠다’라는 등 합리성에 기반한 계획구매 성향이 강해져 브랜드 지향의 소비패턴이 불황기에도 유지될 것임

③ (업종)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 이번 경제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충격이 큰 나라는 공통적으로 서비스업이 발달한 나라들임
 - 미국, 76.0%, 영국, 76.2%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업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경제 충격의 근원지이자 피해지
 - 1995년 이후부터 대부분의 세계 주요국 사이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려는 '경제의 서비스화¹⁾' 경쟁이 가속
- 선진국 중 제조업이 발달한 일본과 독일은 제조업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이번 위기에서 충격이 덜함
 - 일본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품수지 상에서 막대한 흑자를 축적
 - 2007년 GDP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제조업 비중은 26.5%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30.1%로 2005년의 고소득국가 평균인 26%보다 높음
 - 2004년~2006년 상품수출입에 있어서 독일은 2,002억 달러 그리고 일본은 857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
 - 일본과 독일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외환을 보유
 - 2008년 8월 8일 기준으로 일본은 약 9,967억 달러 그리고 독일은 1,371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
- 독일과 일본의 경험은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조업 육성에 있다는 믿음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임
 -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각국은 부문별한 금융업 및 서비스 확장을 지양하고 실물이 수반되는 제조업과의 균형 성장에 무게를 둘 전망

1) Wölf(2005)는 경제의 중심이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서비스 경제(Service Economy)' 혹은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라고 함

④ (구조) 산업내 구조조정 확산

○ (현황) 금융위기로 촉발된 실적 악화로 수익성이 낮고 중복투자가 과도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확산

- (개요)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에 따라 구조조정의 당위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 저수익 또는 비수익 사업을 신속히 매각해야 하는 위기감이 아주 팽배
- 점점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장기화될수록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현재 구조조정 진행 업종) 최근 성장기에 과열 투자가 이루어졌던 업종이나 M&A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점차 증대

- 2008년 10월 현재 국내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업종(금융업 제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택배업: 최근 1, 2년 사이에 진출한 대형 후발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철수나 지분매각이 이미 진행
- 조선업: 업황 부진과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형 조선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현실화
- 건설업: 미분양 주택 증가에다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출 부실화 우려로 채권금융회사 중심으로 건설업체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 강구중
-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자동차업종에서 GM-크라이슬러, 포르쉐-폭스바겐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고,
- 2006년도부터 불황을 겪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도 재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전망) 더욱 경기악화가 진전됨으로써 구조조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번 금융위기를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기회로 삼으며, 그리고 잠재적 성장성이 높은 사업들의 M&A도 적극 전개

⑤ (산업정책) 케인즈 시대로의 회귀

○ (케인즈 시대로의 회귀) 시장기능의 무절제한 팽창에 따른 경제위기 발발로 정부 기능 확대를 주장하는 케인즈의 논리가 다시 주목 받게 됨

- 케인즈 : 1930년대 케인즈는 시장의 기능을 제약하는 대신 정부의 규제 및 재정을 강조하여 대공황을 효과적으로 극복
- 시장 기능의 맹신으로 발생한 이번 경제위기도 극복과정에서 정부 규제와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케인즈의 주장이 다시 힘을 받을 것임
- 정부 경제 주도권 강화는 오바마와 민주당의 정책과도 일맥상통

○ (정부 산업경기 부양 가속화) 국내외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를 지연시키고 산업경기의 급랭에 대비해 재정책대와 감세 등 경기부양책을 추진

- 국제형세 : 오바마의 당선으로 에너지, 자원, 헬스케어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신사업 육성은 물론 서민 복지를 향상
- 오바마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청정에너지임을 감안하면 풍력, 태양열, 원자력, 에탄올 등 자연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에 재정책대가 이뤄질 것
- 헬스케어를 포함한 의료관련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서민복지를 증대하는 동시에 연관 산업 활성화 노력도 가속화
- 국내형세 : 정부가 건설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업황을 개선하고, 법인세 등 13조원 규모의 감세로 산업경기를 부양할 계획
- 정부는 2009년 예산에서 재정지출 확대와 추경예산 편성, 감세 등을 통해 총 3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을 시도함
- 재·증편된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하여 건설경기가 실물경제를 견인하도록 구상
- 지방 건설투자에 4조 6,000억원,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농어업인에 3조 4,000천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 1조원을 지원할 예정

3. 주요 산업 전망 및 현안

○ 2009년 주요 산업 전망 종합

산업	2008	2009	
		전망	비고 (2008년 대비)
조선 산업			- New Shipbuilding Index : 188 → 108 ~ 150
기계 산업			- 수출 : 17.9% → 9.0 ~ 17.0% - 생산 : 8.6% → 4.5 ~ 8.0%
자동차 산업			- 내수 : 6.6% → -7.7 ~ -3.8% - 수출 : 1.9% → -3.4 ~ 3.5% - 생산 : 2.8% → -4.8 ~ 1.2%
철강 산업			- 내수 : 8.2% → -2.5 ~ 2.4% - 수출 : 11.6% → -3.5 ~ 3.5% - 생산 : 10.1% → -4.2 ~ 1.4%
석유화학 산업			- 내수 : 1.4% → 0.0 ~ 1.0% - 수출 : 15.1% → 2.1 ~ 3.5% - 생산 : 9.2% → 0.7 ~ 2.5%
해운 산업			- 벌크선 : 1,223.8 (10/24) → 1,000 ~ 3,200 - 유조선 : 87.5 (10/23) → 60 ~ 90 - 컨테이너선 : 798.5 (10/22) → 700 ~ 900
물류 산업			- 국내 물류 시장 규모 : 21.4% → 4.0 ~ 10.2%
IT 산업			- 내수 : 7.3% → 1.5 ~ 3.0% - 수출 : 4.6% → 2.3 ~ 4.1% - 생산 : 5.9% → 2.4 ~ 4.4%
건설 산업			- 수주 : -6.7% → -7.0 ~ 0.5%

아주 나쁨 나쁨 보통 좋음 아주 좋음

주 : 비고 내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해운사업의 2008지수는 최근 추이를 나타냄.

① 조선 산업

2008년 조선 산업은 하반기 들어와 수주감소와 신조선가 하락을 경험하였고 2009년에는 유조선과 심해시추선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에서 성장둔화가 예상

○ (2008년 현황) 2008년 하반기 들어 수주 감소세 시현

- 최근 수주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신조선가(價) 또한 불안한 양상을 보임
 - 2008년 9월과 10월의 신조선 계약규모는 20척을 밑돌아 2007년과 큰 차이
 - 컨테이너선(8,000 TEU)부문에서 Clarkson Index는 9월까지 137.0을 유지하다 10월 들어와 135.0으로 떨어짐
 - 벌크선(18만 dwt)부문에서는 Clarkson Index는 8월 99.0까지 이르렀다가 9월 96.0 그리고 10월 94.5로 하락

< 2007년과 2008년 9월과 10월의 신조선 시장 비교 >

2007	기간	9/3-7	9/10-14	9/17-28	10/1-5	10/8-12
	척	60	52	89	57	28
2008	기간	9/1-5	9/8-12	9/15-19	9/22-10/3	10/6-10
	척	12	27	21	39	20

자료: 해양수산개발원.

○ (2009년 전망) 금융위기로 조선경기는 2008년보다 나빠질 전망

- 조선에 대한 수요가 교역량 증가세 둔화로 줄어들 전망
 - 2009년 교역규모의 성장률은 4.4%로 2008년의 5.2%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조선에 대한 수요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 높음
- 공급측면에서는 조선계약 해지 증가로 잉여 생산능력이 늘어날 전망
 -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94건이 해약되었는데 이중 한국의 조선업체에서 43척, 중국의 조선업체에서 21척이 취소

< Clarkson New Shipbuilding Index 전망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추정	2009추정	
									최저	최고
114	108	106	119	150	162	165	177	188	108	150

자료: Clarkson Research Services.

참고: 2008년과 2009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 (2009년 이슈) 금융경색이 심화되면서 선박금융의 위축, 업계의 구조조정이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부문에 따라 불황의 강도는 다를 것으로 보임

- **선박금융 축소** : 세계적인 금융경색으로 선박금융이 크게 위축
·2008년 3월 기준으로 발주물량은 1,100척에 액수로는 3,50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70~75%가 아직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구조조정 추진** : 중소 업체들과 신생업체들의 퇴출과 인수합병이 예상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 조선업체들에 대한 조선업체의 건조역량을 보증해주는 '환급보증서(RG)'발행을 꺼려 이미 생산차질이 시작
- **이중선체로의 유조선 대체 증가** : 2010년까지 "단일선체(single-hull)"유조선의 퇴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의 선대를 대체할 조선수요가 단기적으로 증가
·2008년 3월 현재 선복량 기준으로 전체의 21%인 약 7천 1백만 dwt로 추정

< 2008년 3월 현재 단일선체 유조선 현황 >

	VLCC	Suezmax	Aframax	Panamax	MR	총계
비중 (%)	27	15	16	22	24	21
척수 (척)	135	55	125	76	244	635
선복량 (백만 dwt)	37	8	12	5	9	71

자료: 『Single Hull Fleet』, McQuilling Services, LLC, Mar 2008.

- **심해시추선에 대한 수요증가** : 부시대통령의 해상유전개발 금지안 철폐와 브라질 앞바다에서의 대규모 유전 발견으로 초과수요상태가 지속될 전망
·지난 몇 년간 심해시추선은 1년에 1~2척이 인도되어 공급이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초과수요상태가 2012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

② 기계 산업

2008년 기계산업을 견인했던 신흥 성장국 및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수요는 2009년에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나, 내수부진으로 전체 기계생산은 다소 하락할 전망

- (2008년 현황) 중국, 중동, 동유럽, 서남아시아 등의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성장세를 지속
 - 에너지 수출국 :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관련 플랜트 건설이 확대되어 OPEC 등 자원수출국의 건설기계 수요 급증
 - 신흥 공업국 : 중국, 서남아시아, 동유럽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개발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기계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9년 전망) 수출 성장세는 지속되겠으나 국내 경기 악화로 인한 설비투자 부진으로 기계 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내수 부진 : 2008년 세계경제 침체 및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가 2009년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 이에 따라 설비투자 둔화가 2009년까지 이어져 기계산업의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수출 유지 : 신흥 성장국의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기계류 수입수요 또한 유지될 전망이어서 기계 수출은 현재의 성장세 유지

〈 기계 산업 전망 〉

구분	2005	2006	2007	2008(E)	2009(E)	
					최저	최고
생산액(조 원)	280(3.6)	291(7.0)	303(9.1)	329(8.6)	344(4.5)	355(8.0)
수출액(억 달러)	827(21.1)	965(14.0)	1,154(19.7)	1,360(17.9)	1,482(9.0)	1,591(17.0)
수입액(억 달러)	560(9.1)	646(15.4)	746(15.4)	838(12.3)	939(12.0)	963(15.0)
수지(억 달러)	267(39.1)	319(19.5)	409(28.2)	522(27.6)	544(4.0)	627(20.1)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주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단 수지는 전년대비 증(감)액, 2009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주요 현안) 신흥 성장국 수출 성장 지속, 채산성 악화 요인이 상존

-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 감소와 신흥 공업국에 대한 수출 증가

· 금융위기에 따라 서방 선진국(서유럽 및 북미)에 대한 기계수출이 정체되고 있으나, 자원부국과 신흥 성장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결과 선진국에 대한 수출 감소분을 상쇄

< 2007년 일반기계 지역별 수출동향 >

(단위 : 백만 달러, %)

	실적		비중		증가율		기여율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전체	25,313	30,617	100.0	100.0	15.6	21.0	100.0	100.0
미국	4,540	5,039	17.9	16.5	12.4	11.0	14.7	9.4
중국	4,859	5,796	19.2	18.9	16.7	19.3	20.4	17.7
일본	1,947	2,047	7.7	6.7	9.4	5.1	4.9	1.9
인도	789	1,152	3.1	3.8	42.5	45.9	6.9	6.8
러시아	384	572	1.5	1.9	26.8	49.2	2.4	3.6
EU	4,149	5,384	16.4	17.6	17.9	29.7	18.5	23.3
ASEAN	1,858	2,381	7.3	7.8	10.4	28.1	5.1	9.9
OPEC	2,202	3,120	8.7	10.2	16.0	41.7	8.9	17.3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8.6.4.

- 채산성 압박 요인 다수 상존

· 국제 원자재가 : 국제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되어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채산성을 압박할 수 있음

* 기계산업은 저에너지 소비산업으로 분류되고 비용 상승의 30% 정도를 판매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원유가 상승의 채산성 악화 압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함

· 환율 : 환율 상승이 국제 원자재 비용을 상승시키는 동안 외환표시 수출가격으로 충당되지 못하여 채산성을 악화함

*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7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 달러가격 수출가격은 월평균 4.5%로 성장한 반면, (원화가격 상승률 - 환율 상승률)은 4.8%로 환율상승의 0.3%p 수출가격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③ 자동차 산업

2009년 자동차 산업 경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형차 및 친환경차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내수 시장은 중소형 수입차의 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 (2008년 현황) 고유가 지속과 세계적 경기 침체 영향으로 내수는 위축, 수출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유지

- 내수 시장 부진 : 상반기의 고유가 여파, 하반기의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신차 투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는 위축
- 수출 호조세 유지 : 고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미국과 서유럽시장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호조세는 유지

○ (2009년 전망) 선진국시장 침체로 전체 시장은 위축이 예상되나, 신흥국시장 수요 확대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 한편 중소형 수입차의 공격적 내수 공략으로 경쟁 심화, 노사 분규로 인한 생산 및 수출 차질 등 위협 요인은 상존

- 내수 경쟁 치열 :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시장 위축 상황 속에, 중저가 수입차의 공격적 진출로 내수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신흥 시장 수출 확대 : 고연비, 중저가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중소형차의 수출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업에게는 신흥국 시장 확대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 산업 전망 >

(단위 : 천대, %)

구 분	2007	2008(E)	2009(E)	
			최소	최대
생산	4,086 (6.4)	4,200 (2.8)	4,000 (▼ 4.8)	4,250 (1.2)
국내 판매	1,219 (4.7)	1,300 (6.6)	1,200 (▼ 7.7)	1,250 (▼ 3.8)
수출	2,847 (7.5)	2,900 (1.9)	2,800 (▼ 3.4)	3,000 (3.5)
수입차 판매	52 (25.5)	65 (24.5)	75 (15.4)	85 (30.8)

자료 : 2008년까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9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주 : 내수는 국산차 판매 기준, 수출은 통관기준, 수입은 신규 등록 기준.

- (주요 현안)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의 재편 가능성과 이에 따른 관련 산업의 영향, 친환경 자동차시장의 경쟁력 확보 경쟁 가속화, 고연비 중소형차 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 경쟁 가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
- 세계 자동차업계 재편 가능성 :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이른바 자동차 빅3 업체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파산 또는 M&A 등 업계 재편의 가능성이 대두
 -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는 GM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으며, GM은 크라이슬러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미국, 서유럽, 일본 등에서의 신차 수요의 감소 전망에 따라,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구조조정 및 감산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련 산업의 동반 침체가 우려되고 있음
- 친환경 자동차 경쟁 가속화 : 친환경 자동차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임에 따라,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경쟁이 치열
 - 주요국들은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친환경, 고효율의 자동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중
 - 정부는 하이브리드카 보급을 위해 내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를 감면키로 하는 등 친환경차를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힘
- 고연비 중소형차 시장 경쟁 심화 : 고유가 지속으로 고연비, 중소형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고연비 모델의 발빠른 출시로 대응
 - 그동안 소형차 부문이 취약하던 도요타는 최근 초경차 모델 'iQ'를 출시하는 등 제품 라인업을 변화시키고 있음
 - 한편 미국은 고연비 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에 최소 250억 달러를 저리에 융자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임
 -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는 닛산, 미쓰비시, 도요타 등 고연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중소형차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④ 철강 산업

'09년에는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계 철강 수요가 급감하면서 한국의 철강수요와 공급 모두 '08년 대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08년 현황) 조선, 기계 등 제조업의 호황과 철강재의 수출채산성 확보, 그리고 신규 설비투자로 인한 국내생산량 증가로 상승세를 이어감
 - 국내외 블록공장 가동에 따른 조선의 건조능력 확대 및 국내 설비투자 회복과 기계류의 수출 등이 증가하면서 '07년도 대비 내수시장은 8.2% 성장이 예상됨
 - 원자재의 가격상승이 철강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 냄에 따라 수출채산성이 확보되어 판재류 중심의 수출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한편, 국내생산량은 전로의 경우 고로보수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고, 전기로는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6,655만 톤이 생산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함
- ('09년 전망) 과거 세계 경기침체 시, 세계 철강소비율과 생산율을 감안할 때,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과 내수 모두 '08년 대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최대) '01년 닷컴버블 붕괴 때, 세계 수요증가율 2%, 생산증가율 1% 고려 시, 한국의 총수요와 총공급은 '08년 대비 약간 위축된 2.7%, 3.8% 증가가 전망됨
 - (최저) '98년 아시아 경제위기 때, 수요증가율 -2%, 생산증가율 -3%를 고려 시, 한국의 총수요와 공급은 -2.7%, -4.1%로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철강 산업 전망 〉

(단위: 천 톤, %)

	2007	2008(E)	2009(E)	
			최저	최대
총수요	74,314	81,092(9.1)	78,894(-2.7)	83,290(2.7)
내수	55,177	59,728(8.2)	58,270(-2.5)	61,178(2.4)
수출	19,137	21,364(11.6)	20,625(-3.5)	22,122(3.5)
총공급	88,201	95,304(7.7)	91,157(-4.1)	98,636(3.8)
생산	61,686	66,553(10.1)	63,784(-4.2)	67,478(1.4)
수입	26,515	28,481(4.4)	27,373(-3.9)	31,158(0.9)

자료 : 2007~2008년 자료는 한국철강협회, 2009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추정.

주: 한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던 '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시, 세계 철강 소비증가율(-2%) 및 생산증가율(-3%)을 최저로 가정, 간접적 영향을 미쳤던 '01년 미국발 닷컴버블 붕괴 시 세계 철강소비율(2%) 및 생산율(1%)을 최대로 가정함.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총공급 중 수입량에는 핫코일, 반제품 등이 중복 포함됨.

- (주요 현안) 경기침체에도 M&A, 원자재 확보, 설비투자 등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업계 경쟁과 포스트 교토체제의 대응이 이슈로 부각됨
 - 대형화를 위한 대형 철강업체들의 M&A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한국 철강회사들의 M&A 노출 가능성이 증대
 - '06년 세계 1위 Mittal Steel과 2위 Arcelor의 합병 이후 세계 철강업체들은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M&A를 강력하게 추진 중임
 - 이미 러시아의 세베르스탈은 금융위기로 주가가 하락한 미국의 에스마크와 스페로우 포인트, WCI 등을 인수함
 - 원자재 확보 경쟁 가속화 : 자원보유국의 민족주의 확산으로 인한 원료수출 규제에 따라 철강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지속적인 과제로 남을 것임
 - Arcelor-Mittal이 '08년 캐나다, 인도,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주요 철강업체들이 철광석 등 원자재 확보에 주력 중임
 - 포스코가 니켈과 몰리브덴 등 고급강의 원료인 비철금속 광산을 개발하고 있지만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자급률은 17%로 미약한 수준임
 - 공격적인 설비투자의 지속여부 :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의 공격적인 설비투자에서 보수적인 투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세계 경기침체를 반영, Arcelor-Mittal이 350억 달러의 설비투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설비투자의 지속성에 대한 논란이 대두됨
 - 그러나,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우위 지향의 설비확보 욕구와 향후 경기호전에 따른 철강수요 증가를 고려해 보수적인 투자는 지속될 것임
 - 포스트 교토체제 대응 : '13년부터 한국이 CO₂ 감축의무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 고로증설로 인한 생산량 확대와 고급강 비중 증대로 인해 CO₂ 배출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은 CO₂ 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
 - 한편, 탄소감축 미달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 부분에서도 포스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은 해외업체에 비해 펀드 조성 등 준비가 미흡함

⑤ 석유화학 산업

2008년 제조원가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대이상으로 선전했던 석유화학경기는 2009년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현황) 제조원가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공급 불안으로 타이트한 수급 밸런스가 이어지면서 선전했으나 제품군간의 실적 격차가 커짐
 - 타이트한 수급 지속 : 일본의 미츠비시, 중국의 마오밍 PC 등 대규모 에틸렌 설비 사고가 발생하고, 중동의 신증설 영향도 예상보다 적었음.
 - 제품 및 제품군간 격차 확대 : 유가급등으로 에틸렌, 벤젠 등 업스트림쪽은 시황이 부진한 반면, 합섬원료, 고무 등 다운스트림 쪽은 견조한 시황을 유지
- (2009년 전망) 세계 경기 침체로 수요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동의 신증설로 인한 공급 증가 부담이 시작되어 전반적인 침체가 본격화할 전망
 - 수요 둔화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가중으로 건설, 자동차, 반도체 등 석유화학산업의 거의 모든 전방산업에서 수요 둔화가 예상
 - 공급 확대 : 중동 신증설 설비가 2008년 4/4분기 이후 대규모로 일시에 가동되면서 일시적인 공급 초과가 예상

〈 석유화학 산업 전망 〉

(단위 : 천톤, %)

구분	2007	2008(P)	2009(E)	
			최저	최고
생산	18,681 (2.8)	20,399 (9.2)	20,541 (0.7)	20,908 (2.5)
수출	10,021 (3.5)	11,532 (15.1)	11,774 (2.1)	11,935 (3.5)
수입	842 (-6.1)	764 (-9.3)	683 (-10.5)	701 (-8.3)
내수	9,502 (1.3)	9,631 (1.4)	9,631 (0.0)	9,727 (1.0)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주 : 수출 및 수입은 통관기준,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임.

- (주요 현안) 공급측면에서는 중동의 대규모 신증설 설비의 상업생산 개시가 임박했고, 수익측면에서는 제품간 격차의 확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중동의 상업 생산 개시 : 중동의 석유화학 생산설비가 2008년 4/4분기부터 상업생산을 본격화 하면서 대규모 공급 증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 2009년 초부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1,500천 톤의 에틸렌설비를 일시에 가동시키면서 세계 석유화학경기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수출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중동의 신규 설비와 경합 관계에 있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음
 - 단가의 급격한 하락과 감산 가능성 :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하락하는 공급 초과가 발생하면서 가격 급락과 이로 인한 감산 가능성이 존재
 - 수요측면에서는 세계경제 둔화로 수요증가율이 2008년 4.9%에서 2009년에는 3% 후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됨
 - 건설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섬유산업, 전자산업, 타이어산업 등 거의 모든 석유화학산업의 전방사업에서 부진이 예상됨
 - 이에 따라 국내 업체의 생산 설비 가동률이 현재의 92%에서 80% 후반대로 하락할 위험성도 높아짐
 - 제품간 수익성 격차 확대 : 전 세계적인 수익성 악화 분위기 속에서 업스트림 제품과 다운스트림 제품 간의 수익성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업스트림 제품인 모노머(monomer)의 경우 공급 증대 부담으로 채산성 개선 경쟁은 심화되는 반면, 제품으로의 원가 전이는 더욱 어려울 것임
 - 미들스트림 제품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폴리머(polymer)의 경우,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되면서 당분간 적정가격이 유지될 전망
 - 다운스트림 제품인 합성고무 계열의 경우, 세계 천연고무 작황부진으로 천연고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보일 전망

⑥ 해운 산업

2008년 초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해운은 하반기 들어와 물동량 증가율 감소로 성장 둔화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에는 공급이 증가하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 될 전망

○ (2008년 현황) 2007년 말 서브프라임 위기이후 경기둔화세

- 해운의 전 부문에서 2008년 상반기부터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

- 벌크선 부문에서 BDI는 올 5월 21일 11,771이라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접어들어 10월 24일 현재 1,223.8
- 유조선 부문에서 AG(중동)-극동항로의 운임지수(WS)는 2007년 12월 19일 315.0에 도달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08년 7월 2일 242.5까지 회복한 후 하반기 들어와 약세를 보이며 10월 23일 87.5 기록
- 컨테이너선 부문에서 HRI는 2008년 3월 26일 1,383까지 약간 회복한 후 하락세로 접어들어 10월 22일 798.5 도달

○ (2009년 전망) 세계경제의 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와 공급의 증가로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세계교역량 증가율 저하로 해운에 대한 수요 감소가 전망

- 교역성장률이 -0.4%였던 2001년 BDI는 1,000, WS는 67.2 그리고 HRI는 707.9

- 해운의 모든 부문에서 공급이 크게 증가

- 2009년 벌크선의 경우는 2008년 4월 기준 기존 선복량의 15.1%, 유조선의 경우는 14.5% 그리고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15.8%가 추가될 것으로 보임

〈 주요 해운지수들의 변화 추이 〉

	2006년 평균	2007년 평균	2008년		2009년추정	
			9월 평균	최근	최저	최고
벌크선 [BDI (1985=1,000)]	3,188.8	7,068.2	4,975.1	1,223.8(10/24)	1,000	3,200
유조선 [AG-극동(WS)]	101.5	89.5	120.6	87.5(10/23)	60	90
컨테이너선 [HRI (1997=1,000)]	1,239.5	1,263.7	1,027.9	798.5(10/22)	700	900

자료: 『해운-선박시장 동향』, KMI, 제 409호, 2008년 10월 27일.

참고: 2009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 2008년 4월 현재 기존선대와 인도될 선대의 비교 >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TEU)	
	척	선복량 (1000 dwt)	척	선복량 (1000 dwt)		
기존선대 (2008년 4월)	6,876	402,012	2,865	336,151	11,212,405	
인도될 선대	2008년	330	21,953	234	26,043	1,228,539
	2009년	778	61,010	375	48,811	1,773,862
2009년 인도될 선대의 기존 선대에 대한 비율 (%)	11.3	15.1	13.0	14.5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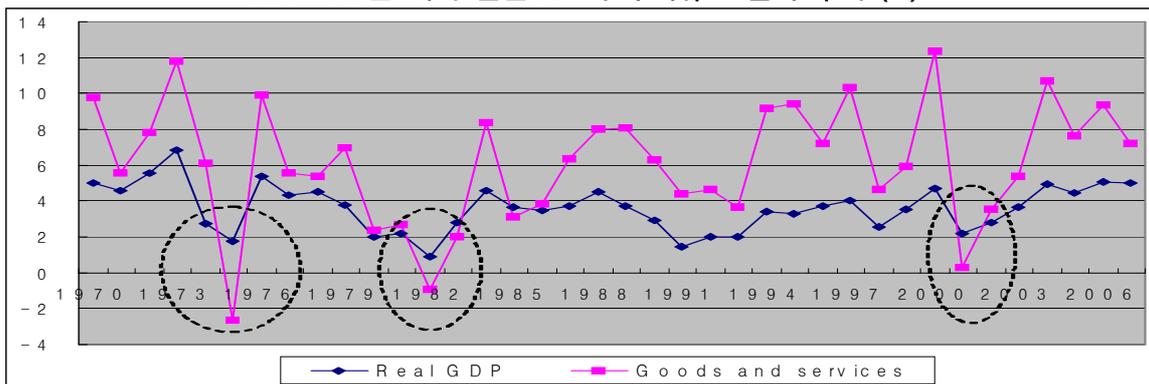
자료: 1) 『Dry Bulk Insight』, Drewry, Jun 8, 2008; 2) 『Tanker Insight』, Drewry, May 8, 2008; 3) 『Container Insight』, Drewry, May 8, 2008.

- 선대의 구성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개별기업의 영업성과는 다를 것으로 보임
 - 컨테이너나 유조선의 비중이 높은 경우 또는 장기계약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불리할 수 있음

○ (2009년 이슈) 해운경기의 악화 가능성과 '해운동맹'해체에 따른 경쟁격화

- 해운에 대한 수요 곤, 무역규모는 경제 불황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
 - 세계경제가 불황에 접어들어 GDP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경우 무역규모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짐

< 1970-2007년 세계 실질GDP와 무역규모 변화 추이 (%) >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 2008』, IMF, Oct 2008.

-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해운동맹' 해체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1999년 5월부터 실행해오고 있고 EU는 2008년 10월부터 선박회사들이 '해운동맹'을 결성하여 요금과 수송량을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

⑦ 물류 산업

2008년에는 고유가로 운송물류비가 급증, 2009년에는 경기 침체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2008년 현황) 2008년 전체 물류시장(기업 물류 시장)은 고유가 급등, 운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한 9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 수요 증대 : 수출이 확대되고, 주요 택배 수요업체인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매출 증대에 기인
- 또한 고유가 급등과 운임 증가로 인해 기업들의 물류비 지출 규모가 확대

○ (2009년 전망)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물량 감소와 이에 대응한 화주 업체들의 원가 절감 노력으로 물류시장은 소폭 증가 예상

- 수요 증가세 둔화 :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09년 전체 물류시장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하여 최소 97조원 ~ 최대 102조원에 이를 것임
- 기업들이 매출 둔화에다가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물류비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비 시장은 전년 대비 4.0% ~ 10.2% 증가로 전망

< 국내 물류 시장 전망 >

(단위: 조 원, %)

구분	2005	2006(E)	2007(E)	2008(E)	2009(E)	
					최소	최대
전 산업 매출액	1,611	1,702	1,864	2,272	2,360	2,500
매출액대비 기업물류비 비중 (지급물류비 비중)	9.7% (42.9%)	9.6% (43.0%)	9.6% (43.1%)	9.5% (43.1%)	9.5% (43.2%)	9.5% (43.2%)
물류 시장 규모 (전년대비 증가율)	67 (13.4%)	70 (5.1%)	77 (8.8%)	93 (21.4%)	97 (4.0%)	102 (10.2%)

자료: 1.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비중", "지급물류비 비중"은 「기업물류비 실태분석」(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의 2003년도, 2005년도 결과 참조.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년도 3개년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HRI 추정.

2. "매출액 (전산업)"은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을 참조. 2008년도 매출액은 상반기 증가율을 기준으로, 2009년도는 전년도 3개년 평균 매출액증가율을 기준으로 HRI 추정.

주: 1. 물류시장 규모 = (전산업 매출액 × 매출액 대비 기업 물류비 비중) × 지급물류비 비중
 2. "지급물류비"는 "기업물류비" 중에서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웃소싱한 비용임.

- (주요 현안) 물류업계의 구조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3PL 증대 등 선진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
 - 물류업계 자율적 구조 조정 : 과당 경쟁과 단가 하락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한계 기업의 철수 또는 매각이 본격화
 - '08년 9월에 동원택배가 택배업 진출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을 철수하였고, 신세계SEDEX가 한진에게 지분 100%를 매각하면서 양사간 3PL 제휴 체결
 - 현재의 과당 경쟁과 수익성 저하라는 악순환 구조로 인해 경쟁 취약한 한계 기업들이 대형 업체에 인수될 전망
 - 시장 안정화 및 3PL 확대에 의한 선진화 계기 : 과당 경쟁이 다소 진정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한편으로 화주 - 물류업체간의 제휴로 선진화 계기를 마련
 - 화주 - 물류업체간 제휴 증대 : 자체적인 물량이 부족해 물류 자회사를 두기 어려운 대기업 그룹(화주업체)들이 대형 물류 업체등과 제휴 사례 증대
 - 업계 선진화 계기 :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사라지면서 시장 안정화가 진행되며, 전문 물류업체로의 위탁이 많아지고 정부의 물류업체 육성책 등과 맞물려 3PL이 더욱 증대될 것임
 - 규모 경쟁에 대응한 신규 서비스 개발, 시설 확충 : 업계 대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차별적인 고부가 서비스 개발로 신규 고객 유인이 활발해 질 것임 (당일집배송서비스, 육해공 연계서비스 등)
 - 서비스 다양화 및 고객 확대에 대응한 터미널 등 인프라 확충
 -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 가속 : 국내 대형물류업체들이 현재 수익성 확보를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미주, 유럽, 동남아 등 베트남, 인도 등으로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화와 현지화 추세에 맞춰 화주와의 동반진출이라는 방법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 글로벌 서비스에 부응한 물류 전문 인재 확보 및 육성, 글로벌 SCM(Supply Chain Network)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 현안으로 부각될 것임

⑧ IT 산업

2008년 하반기부터는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2009년에도 하락 또는 약 보합세를 보일 전망

○ (2008년 현황)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하향 추세

- 반도체 등 : 2분기 반짝 상승하던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3분기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섰고, 공급 초과 지속으로 하반기에도 회복세 기대가 어려울 전망
·D램 주력제품인 512Mb와 1Gb DDR2 가격이 각각 0.83달러와 1.83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생산량은 64% 증가하여 공급 초과가 심화
- 정보통신 : 3G 시장 성장에 의한 교체수요와 WCDMA, DMB 활성화로 지속 수요가 발생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감

○ (2009년 전망) 세계 경기침체로 IT산업의 상승세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유비쿼터스 제품 생산 증가, 신흥시장의 통신 인프라 확대 등이 기대됨

- 반도체 등 : 2009년 상반기부터 감소효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나, 신흥시장의 경기침체와 공급과잉 지속으로 강한 반등세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 정보통신 : WiBro 시장 성장으로 신규/교체 단말 수요가 상승하고 신흥국의 디지털 방송시장 위주로 약한 상승이 전망

〈 IT 산업 전망 〉

구분	2007	2008(E)	2009(E)	
			최저	최고
생산(조 원)	190.3 (4.4)	201.6 (5.9)	206.4 (2.4)	210.5 (4.4)
내수(조 원)	134.2 (3.0)	144.1 (7.3)	146.2 (1.5)	148.4 (3.0)
수출(억 달러)	1,250.8 (10.4)	1308.7 (4.6)	1,338.8 (2.3)	1,362.3 (4.1)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 : 1) () 내는 전년 대비 증가율, 2) IT 산업은 반도체 및 정보통신을 합한 것임.

- (주요 현안) 미국 發 금융위기로 세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반도체, 휴대폰, LCD 등 주력 제품의 수출과 수익성의 하락 추세가 지속될 전망
 - **감산효과 및 환율효과 미약** : 감산과 환율에 의한 긍정 효과 보다 경기 하강에 의한 수요 침체 효과가 더욱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
 - 특히, TFT-LCD 시장은 인도의 생산 참여로 LG, 삼성 등의 감산효과가 상쇄되고, 채산성도 악화될 전망
 - **IT업계 구조조정 압력 확대** : 반도체, LCD 등에서 중저가 공세를 지속하던 대만 업체와 샌디스크 등의 수익성이 급감하면서 구조조정 압력이 확대 될 전망
 - 세계적으로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 감원 등이 잇따르면서 PC를 비롯해 모니터, 프린터 등 사무용품 수요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반도체, LCD 수요도 급감하면서 한계상황에 있던 업체들 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
 - **융합 IT 시장과 신제품 상용화 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IT와 자동차, 조선, 의료, 국방, 건설 등 기존 산업과의 융합시장의 성장세가 본격화 하면서 IT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상용화 확대는 지속될 전망
 - 융합 IT시장 확대** : 스마트 카, 지능형 선박, 의료 센서, 첨단빌딩 등 IT와 기존산업의 융합제품이 일부 또는 전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IT산업의 새로운 수요처로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할 전망
 - 신제품 상용화 확대** : 감산 및 이전 세대 생산라인 철수는 지속하되, 시스템 메모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등의 신제품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임
 - **IT서비스 업황 하강** : 세계 경기 하강으로 해외 IT서비스 수요가 감소하고, 금융 분야의 IT 서비스 투자도 주춤하면서 IT 제조업 수요도 감소할 전망
 - 신흥국 경기 침체로 IT서비스를 동반하는 해외 SOC 수요가 제한적으로 전개되면서 2008년 대비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⑨ 건설 산업

2009년 건설경기는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공공 수주가 증가하고 민간은 대폭 감소 전망

○ (2008년 현황)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 건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큰 폭으로 하락

- 공공부문은 국토균형개발사업 발주 및 공공 주택수주 호조 등으로 수주세가 다소 증가했으며, 민간부문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및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

○ (2009년 전망) 경기 활성화 및 국토 균형 개발 대책으로 공공부문 확대가 예상되나 민간 부문의 대폭 위축으로 전체 수주는 감소세 전망

- 주체별 : 공공 부문은 재정투자 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성장세를 확대, 민간 부문은 전년 대비 최대 30% 이상 감소세 예상
- 공종별 : 공공 건설수주의 대부분인 토목 부문 수주는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며, 건축 부문에서는 국토종합개발 사업의 확대로 비주거 부문은 확대될 것이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주거용 건설은 약세를 지속할 전망

< 국내 건설업 현황 및 전망 >

(단위 : 조 원, %)

		2005	2006	2007	2008(E)	2009(E)	
						최저	최고
주체	공공	31.8(-5.7)	29.5(-7.2)	37.1(25.6)	38.5(3.8)	42.0(9.1)	47.0(22.1)
	민간	67.6(11.1)	77.8(15.2)	90.8(16.7)	80.9(-10.9)	69.0(-14.7)	73.0(-9.8)
공종	토목	30.4(-5.7)	28.4(-6.6)	36.2(27.5)	35.4(-2.3)	40.0(13.0)	43.0(21.5)
	건축	69.0(10.6)	78.9(14.4)	91.7(16.2)	84.0(-8.4)	71.0(-15.5)	77.0(-8.3)
	주거	43.0(20.6)	53.3(23.9)	28.1(9.1)	53.2(-8.5)	43.0(-19.2)	46.0(-13.5)
	비주거	26.0(-2.6)	25.7(-1.2)	33.6(30.8)	30.8(-8.1)	28.0(-9.1)	31.0(0.6)
전체		99.4(5.1)	107.3(8.0)	127.9(19.2)	119.4(-6.7)	111.0(-7.0)	120.0(0.5)

자료 : 국토해양부.

주 : 각 수치는 수주 기준이며,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009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주요 현안) 국내 건설경기 침체 심화, 업계 구조조정 확대, 해외 건설 증가세 둔화 등이 예상

- **국내 건설경기 침체 심화** : 주택 미분양 및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증가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경기전망지수가 최악을 기록
 - 주택 수요 침체 지속으로 미분양 아파트, 특히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건설사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도입한 PF 규모는 올 6월말 약 70조원 수준이며, 은행권의 연체율은 0.68%로 2006년의 3배 수준
 -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및 공사물량지수, 자재수급지수, 자금지수 등 건설경기전망지수 대부분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 **업계 구조조정 확대** : 수익성 악화로 인한 한계 건설기업의 퇴출 및 M&A 활성화 가능성이 증대
 - 원자재가 상승 등 원가구조 악화로 수익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한계 기업의 시장 퇴출 및 M&A를 통한 업계 구조조정이 예상
 - 현재 미분양에 묶인 자금이 약 45조원에 달하고, 건설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비용도 연간 3천억원 이상으로 파악
 - 올 상반기 부도 건설업체는 180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44.9% 증가했으며,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하반기 이후 더욱 증가 예상

- **해외건설 성장세 둔화** :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해외 건설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며, 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 성장 확대가 예상
 - 전반적인 건설경기 위축 속에 최근의 원유가격 하락세가 장기화 될 경우,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해외건설 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있음
 - 특히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PF 위축으로 자금 조달 및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
 - 다만 한국 해외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 공공사업의 성격이어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4. 2009년 산업부분 5대 과제

- (첫째, 산업기반 붕괴 방지를 위한 내수부양 정책 필요) 산업경기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기업 규제완화를 통한 적극적 내수부양이 시급
 - 지역 광역권 개발, 새만금 사업 등 정부 SOC 투자를 예정대로 집행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기업 규제 완화도 신속히 추진
 - 또한 투자금액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조기 인하, 특별소비세와 부가세의 한시적 감면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
 -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예정대로 추진하면 약 4조 2,000억 원의 기업투자 향상 효과가 기대됨

- (둘째, 수출 확대 지원책 필요) 내년도 주력산업들의 수출 둔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 수출보험기금을 증대하여 플랜트 등 고위험 수출상품을 지원하고,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IT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보완
 - 잠재력은 있지만 리스크가 큰 마이너 마켓에 진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일본과 중국처럼 해외진출보험과 대출제도 확대도 고려

- (셋째, 신성장산업 발굴 지속) 경기 회복기에 성장발판이 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
 - 선진국 경제 침체로 선진국의 투자 여건이 악화된 때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사업 육성을 강조
 - 577전략과 같은 국가 R&D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형성 초기에 있는 미성숙된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설자 역할을 강화하며, 보조금 지급 확대 등을 추진

- (넷째, '3R' 경영에 집중) 3R 경영전략으로 긴축경영, 내실경영에 집중하여 불황기를 극복
 - 'Re-engineering (경영체제 개편)' 관점에서 비용절감, 불필요한 업무제거,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 'Re-structuring (사업구조 조정)' 관점에서 저수익, 비수익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하는 불황기형 포트폴리오를 구성이 시급
 - 'Re-vitalization (조직 문화 활성화)' 관점에서 무리한 인적 구조조정은 최대한 지양하여 조직 안정성을 도모하고,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인재 발굴과 양성은 지속
 - 보수적인 자금 운영으로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유동성 강화를 위한 기업 자금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

- (다섯째, FTA 추진 가속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므로 새로운 시장 확보와 수출 물량증대를 위하여 FTA 추진을 가속화
 -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하고 한-EU, 한중 FTA를 앞당겨 경기 침체기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마련
 - 경공업, 농수산업 등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확대하고, 반 FTA 정서로 FTA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적인 합의를 유도

산업전략본부 (3669-4334, jryanglee@hri.co.kr)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P)	2008(E)	2009(E)	상반기	하반기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0	4.3	3.9	3.2	4.7	
	최종소비지출 (%)	4.7	2.7	2.3	2.0	2.6	
	민간소비 (%)	4.5	2.5	2.2	1.9	2.5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1.6	0.8	2.3	
	건설투자 (%)	1.2	-1.3	1.5	1.0	1.9	
	설비투자 (%)	7.6	1.2	2.3	1.2	3.4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60	-103.5	-10	-30	2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47	-90	-2	-10	8
		수출 (억 \$)	3,715	4,410	4,917	2,360	2,557
		증가율 (%)	(14.1)	(18.7)	(11.5)	(10.3)	(12.6)
		수입 (억 \$)	3,568	4,500	4,919	2,370	2,549
		증가율 (%)	(15.3)	(26.1)	(9.3)	(7.4)	(11.1)
기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3.9			
	실업률 (%)	3.2	3.3	3.4			
	국제유가(Dubai, \$)	68	100	80			
금융	원/\$ 환율 (평균, 원)	929.0	1,060.0	1,040.0			
	국고채금리 (3년만기, 평균 %)	5.23	5.45	5.3			
	회사채금리 (3년만기 BBB+ 무보증, 평균 %)	6.11	7.5	6.9			